

## 새싹 불자를 기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9월 2일까지 '오르세 미술관'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밀레의 '만종', 고희의 '고희의 방',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등의 세계적인 명화도 관람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02)322-0071

#### 광주 첨단지구 상암공원에서

다양한 '빛' 문화를 모아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야간문화축제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빛고을 광주 빛 엑스포'가 열리고 있다. 대형등 50조, 공예 및 소형등 1만2000점 전시, 광주의 밤을 밝히는 이번 행사는 진시황병마용전, 희망의 등 율리기, 마인·미술·페이스페인팅, 소망의 등·엽서 달기 등으로 꾸며진다. 6월 24일까지. (062)974-0513

#### 부산 백스코 1홀에서는

제2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이 열린다. 각종 마술쇼와 마술공연, 마술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5월 2일-6일까지. (051)628-0935

#### 청주 예술공장주대 야외공연장에서

'제3회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전통 농촌마당극이 풍물굿, 인형극, 마당극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공연된다. 질공예품 전시, 벽화그리기, 주먹밥 만들기 등도 즐길 수 있다. 5월 4일-6일까지. (043)211-0752

####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는

'2007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 잔치'가 열린다. 어린이 책에 관한 심포지엄, 출판과정 견학 프로그램, 베틀시장, 어린이합창·제즈 공연 등 부대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지지 특별전도 준비되어 있다. 5월 4일-13일까지. (031)955-0063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 마음 열면 가족이 보여요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생각이다. '나'는 어떻게 인연이 되어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일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족은 고민의 대상이기도 하다. 가까운 상대일수록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법.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에게도 잘해주고 다짐하면서도 늘 그러지 못해 후회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다.

#### □ 가장 친한 가족 '엄마'

청소년들이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늦잠이라도 자려면 깨워서 학교 보내고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엄마. 가장 가까운 식구다.

'엄마'와는 자주 마주치기에 비교적 갈등이 심하지 않다. 그러나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을 경우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도 크다. 엄마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박영임 상담원(청소년사이버상담원)의 조언처럼 해보자.

“엄마가 어떤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요. 방청소를 예로 들면, 웃을 잘 안 걸어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지, 책을 다 찾아야 엄마가 깨끗하다고 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는 거죠. 그런 다음, 친구들과 엄마에게 자신이 노력 한 부분을 이야기해 봐요. '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보았는데 엄마는 어퍼시나,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보시기에 부족할지 걱정이 된다'고요. 엄마와는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아빠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제 주위에 아빠랑 잘 지내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아빠랑 제대로 이야기할 때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소영(서울보성여고 1)이에게 아빠는 거의 '잊혀져버린 존재'다. 주중에는 아빠가 바빠서, 주말에는 자다가 시간이 없어서 잊갈리기 일쑤다.

청소년과 아빠의 문제는 사실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기 아이들도 맘마가 좋고, 아빠도 맘이 없어서 아예 대화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 이렇게 놓아두면 청소년과 아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아갈 뿐이다. 한 번 충돌이 일어나면 견집을 수 없다.

아빠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 서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사할의 자비명상 프로그램이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단절의 정도가 심하다면 전문 가족상담실을 찾는 것도 좋다. 해결의 실마리를 우선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홍분은 금물 차근차근 대화 하세요”

###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 많아야

## “표현 방식만 조심하면 싸움 일 없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서로 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청소년들과 아빠는 서로 사랑으로 이어져 있고, 믿을 수 있는 관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아요

“내 동생은 방청소를 절대 안 해요. 알미워죽겠어요.”, “부모님이 오빠만 좋아해요.”

형제자매처럼 또래상담에 유리한 상태는 없다. 서로 관심사가 비슷해서 부모님보다 오히려 말이 잘 통할 때가 많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 무섭게 싸우게 되는 것이 형제자매. 사람들이 비교해대는 통에 괜히 경쟁관계가 되기도 한다.

서울청소년종합상담실 소수연 교육연구팀장은 “형제자매간 갈등은 자연스럽게 우며 갈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며 “습관적으로 특목 건드리거나 시비조로 이야기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 □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중한 가족이랍니다

오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청소년들이 드물다. 명절 때 찾아보는 정도. 조부모가 그저 사랑스러운 손자손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부모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조부모 성함 알아내기부터. 의외로 조부모의 합자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왕이면 한자까지 알아두는 편이 좋다. 한자로 조부모님 성함을 써서 보여드리면 어떤 선물보다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안부전화를 자주 드리지.

한국청소년상담원 조은경 선임상담원은 “사람의 관계는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있어야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조부모와의 관계는 가족 간의 동일성 찾기에 함께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김강진 객원기자

※ 가족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요!

바다상담실 www.w1316.org/haesol2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www.teen1318.or.kr  
열린가족상담센터 www.familyss.com  
한국청소년상담원 kycci.or.kr  
효도하자 www.hyodohaja.com  
한국가족상담센터 (02)525-0618  
(이외에도 각 시·군·구에 청소년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방상담도 가능 하다)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웰빙가구의 대명사 - 덕심

#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송) 茶心마루 공장직판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차 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구분	크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육송재질 좌탁	1200×600×300(소)	300,000	160,000
	1300×770×300(중)	400,000	200,000
	1500×770×300(대)	500,000	260,000
	1800×770×300(특대)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 육송재질은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직업으로 제작.
- 소재: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송(중형목) 사용
- 사용: 차탁, 거실의 좌탁,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방부상, 책상 등
- 사용법: 활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 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 반질해서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 ★부처님 오신 달 특별행사★

# 봉 신특사 + 부석사 + 청량사

### 삼사찰 순례여행

신특사: 여주읍에서 동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남한강 상류봉암사지구에 있는 오래된 절로 사찰로서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절은 강카락 '엄반' 위에 벽돌로 만든 대웅전탑이 있어서, 고려 때부터 벽돌이라고도 불렀다.

부석사: 신라 문무왕 8년(663년)에(원효대사)세운, 원효의 상(사)에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의상대사가 원효에게 유언하고 있을 때 당고종의 법당인 지명유연도원(47호인)정형사(유리보전)이 보존되어 있다.

청량사: 이 절형사는 동수지리현상갈지(동)의 길지로 불어는데, 육룡봉(12봉우리)이 연봉처럼, 정형사(봉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절형사는 연꽃의 수승지리이다.

날짜: 2007년 5월 1일 ~ 5월 30일까지 [매주 월, 수, 토, 일출발]  
코스: 서울 - 여주신특사 - 영주부석사 - 봉외청량사 - 서울  
회비: 37,000원 [왕복교통비, 조식, 중식, 석식, 입장료, 동시료 일체포함]  
※석가탄신일은 기온방양사로 -> 탄금대 - 중양담/양성온천(물중생택)(음력 4월 초파일날)

출발시간  
07:00 영등포 구청역 1번출구 외환은행 앞  
07:30 서울역 9번출구 대우빌딩 앞  
08:00 잠실역 3번출구 너구리상 앞

www.dongbaektour.co.kr  
인터넷주소장에 동백여행사 라고 치세요.  
전화주시면 여행정보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Dong Baek  
동백관광여행사  
예약문의 : (02)2233-3500  
계좌번호: 농협 046-02-119148 [동백여행사]